

2023년 1/4분기
창원지역 기업경기전망조사

2022. 12

1. 조사목적

- 창원지역 기업경기전망조사(Business Survey Index: BSI)는 창원지역 소재 제조기업의 체감 경기 수준에 대한 이해와 창원지역 기업들이 처한 경영환경을 조사하여 창원지역의 기업경기 동향을 파악하는 한편, 지역기업에는 경영상의 의사결정 참고자료로, 기업지원 기관·단체에는 시의적절한 지원정책을 위한 기초자료로 제공하기 위함

2. 조사방법 및 기간

- 조사방법 : 온라인 설문조사
- 조사기간 : 2022. 12. 5 ~ 12. 16(휴일제외 10일 간)
- 분석대상 : 154개 응답업체

(단위 : 매, %)

	규모별		수출, 내수 비중		
	대·중견기업	중소기업	수출위주 기업 (수출 50% 이상)	내수위주 기업 (수출 50% 미만)	
매수	43	111	35	119	
비중	27.9%	72.1%	22.7%	77.3%	
업종별(완성품 기준)					
	전기·전자	자동차·부품	기계·장비	철강·금속	기타
매수	19	32	53	30	20
비중	12.3%	20.8%	34.4%	19.5%	13.0%

3. 조사내용

- 제조업 체감경기 현 수준 및 향후 전망
- 체감실적 및 전망, 매출액, 영업이익, 자금사정
- 기업경영환경 요인

4. 분석방법

- 기업경기지수(Business Survey Index ; BSI)는 전분기 실적과 향후 전망에 대한 응답업체 수를 바탕으로 아래 공식으로 지수화한 것임

$$\text{BSI} = \frac{(\text{긍정적인 응답업체수} - \text{부정적인 응답업체수})}{\text{전체 응답업체수}} \times 100 + 100$$

- BSI 100 : 체감경기 ‘호전’과 ‘악화’로 응답한 업체수가 같음
- BSI 100 이상 : 체감경기 ‘호전’으로 응답한 업체가 많음
- BSI 100 미만 : 체감경기 ‘악화’로 응답한 업체가 많다는 것을 의미함

II

요약

- 2023년 1분기 전망BSI '71.4', 2022년 4분기 실적BSI '70.8'
 - 전망BSI, 3개 분기 연속 기준치 하회
 - 기업활동 뒷받침해온 매출액과 생산량 전망도 부정적
 - 항목별 전망BSI, 매출액(82.5), 영업이익(72.1), 설비투자(81.2), 공급망 안정성(82.5), 사업장 공장 가동(89.6) 등 전 부문 기준치 하회
 - 업종별 전망BSI, 기계장비(80.0), 운송장비(76.9), 전기전자(57.9), 철강금속(53.8), 기타제조업(53.8) 등 전 업종서 기준치 하회
 - 규모별 전망BSI, 중소기업(70.3)이 대·중견기업(74.4)에 비해 내수기업(67.2)이 수출기업(85.7)에 비해 더욱 부정적 전망
- 응답업체 57.1%, '매출액 목표치 미달', 66.2%, '영업이익 목표치 미달'
 - 절반 이상이 연초 계획한 목표치 미달
 - 경영실적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로 원자재 가격(42.9%), 내수시장 경기(25.3%), 수출시장 경기(15.6%), 고금리 상황(9.1%), 고환율 상황(5.8%) 순
 - 채산성과 직결되는 원자재 가격 변화가 대량생산 중심의 창원지역 기업의 수익성에 가장 큰 영향 미친 것
- 2023년 경제성장률, 응답업체의 70.8% '1.5% 미만' 전망
 - 기업현장에서의 예상치(정부 전망치 1.6%), '1.5% 미만' 70.8%, '1.5% 이상 2.0% 미만' 22.7%, '2.0% 이상 2.5% 미만' 4.5%, '2.5% 이상 3.0% 미만' 0.6%, '3.0% 이상' 1.3% 응답
 - 3분기 조사결과와 비교해 '1.5% 미만' 응답 비중 39.5%p 커져...
 - 이에 따른 투자계획, '올해보다 감소할 것' 41.9%, '동일한 수준' 34.9%, '올해보다 증가할 것' 23.3%에 그쳐...

● 2023년 대내외 리스크로 30.7%, ‘고물가 원자재가격 지속’ 꼽아...

- 다음으로 고금리 지속(15.8%), 내수경기 침체(15.2%), 원부자재 수급 불안(14.0%), 수출둔화 장기화(8.8%), 고환율 장기화(6.1%) 순
- 규모 및 형태별로, 대·중견기업과 내수기업은 ‘내수경기 침체’,
중소기업과 수출기업은 ‘고금리 지속’에 상대적으로 많이 꼽아...

● 정부 역점과제로 ‘외환시장 안정’과 ‘금리정책’ 꼽아...

- 경제 리스크 관리를 위해 정부가 역점으로 두어야 할 과제로 환율 등 외환시장 안정(24.4%), 경기부양을 위한 금리정책(22.2%), 자금조달시장 경색 완화(16.8%), 수출 및 기업활동 지원(10.8%), 공급망 안정화(10.5%), 규제혁신을 통한 성장동력 확보(10.5%), 지정학적 리스크 완화를 위한 경제외교(4.4%) 순
- 환율 등 외환시장의 안정을 정부 역점과제로 꼽은 가운데 2023년 사업계획 수립 기준 환율(평균)은 ‘1,275.50’

Ⅲ

2023년 1/4분기 기업경기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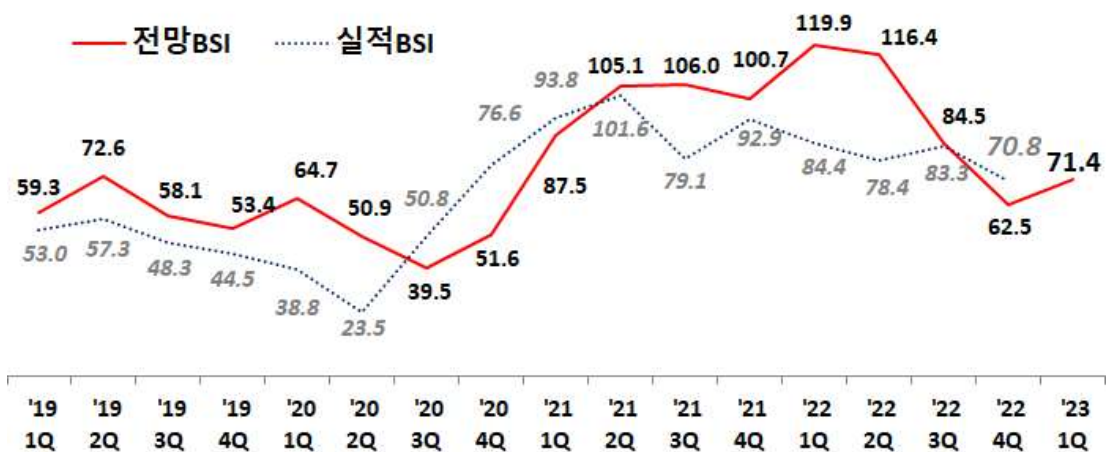
1. 창원 제조업 경기 전망 및 실적 BSI

○ 2023년 1분기 창원지역 제조업 경기전망조사 결과, 전망BSI(기업경기실사지수)가 '71.4'(기준치 100)으로 조사되어 3개 분기 연속 기준치를 하회했음.

원자재가격, 인건비, 공급망 불안정 등 생산비 증가와 금리인상에 따른 수익성 악화 속에도 매출액과 생산량이 회복하면서 기업활동을 뒷받침해왔으나, 2023년 1분기는 이마저도 부정적 전망을 내놓고 있음. 이는 내년 국내외 수요감소 등 경기침체가 본격화할 것이란 예상에 따른 것으로 풀이됨.

○ 2022년 4분기 실적을 바탕으로 나타난 실적BSI도 기준치를 밑돈 '70.8'로 조사되었음.

창원지역 제조업 전망 및 실적 체감경기(BSI)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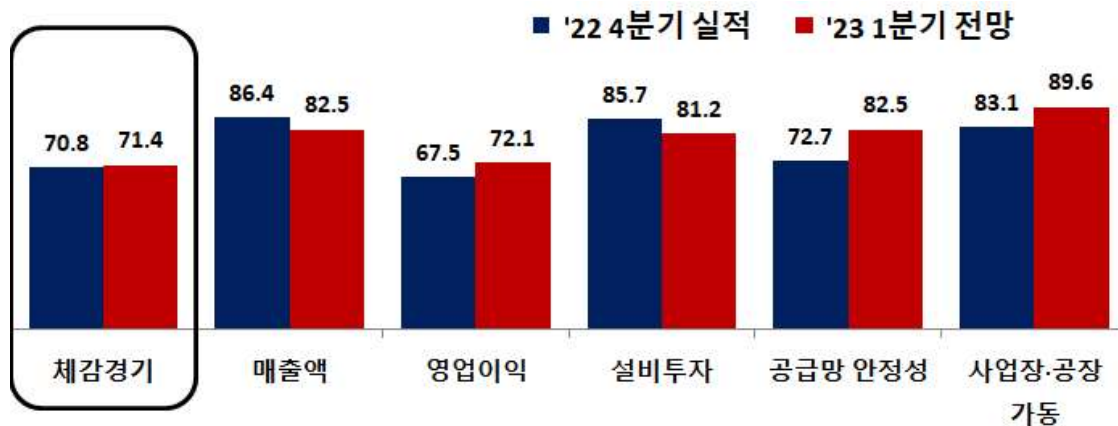


※ 체감경기 지수는 절대적인 실적이 아닌, 앞선 분기와 비교해 상대적 체감정도를 의미하므로 지수해석에 주의가 필요함.

2. 항목별 경기 전망 및 실적 BS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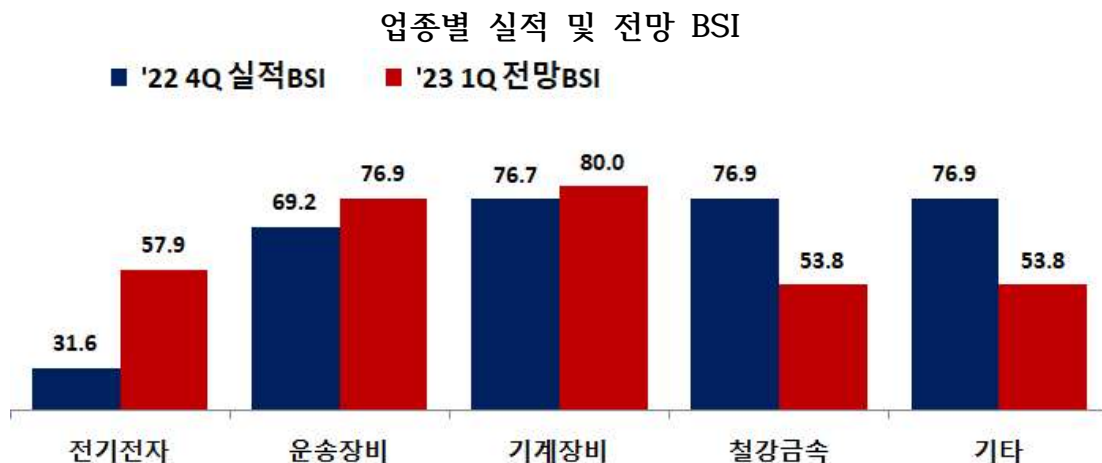
- 2023년 1분기 항목별 전망BSI는 매출액(82.5), 영업이익(72.1), 설비투자(81.2), 공급망 안정성(82.5), 사업장 공장 가동(89.6) 등 전 부문에서 기준치를 하회했음.
- 2022년 4분기 항목별 실적BSI도 매출액(86.4), 영업이익(67.5), 설비투자(85.7), 공급망 안정성(72.7), 사업장 공장가동(83.1) 등 모든 부문에서 낮은 수준으로 조사되었음.
- 2022년 2분기부터 본격화된 3고(고금리, 고환율, 고물가) 악재의 영향이 4분기에 더욱 뚜렷하게 나타나는데 이어, 내년부터는 수요 부진도 두드러질 것이란 예상에 따라 2023년 1분기 항목별 전망BSI가 기준치를 모두 밑돈 것으로 분석됨.

항목별 실적 및 전망 BS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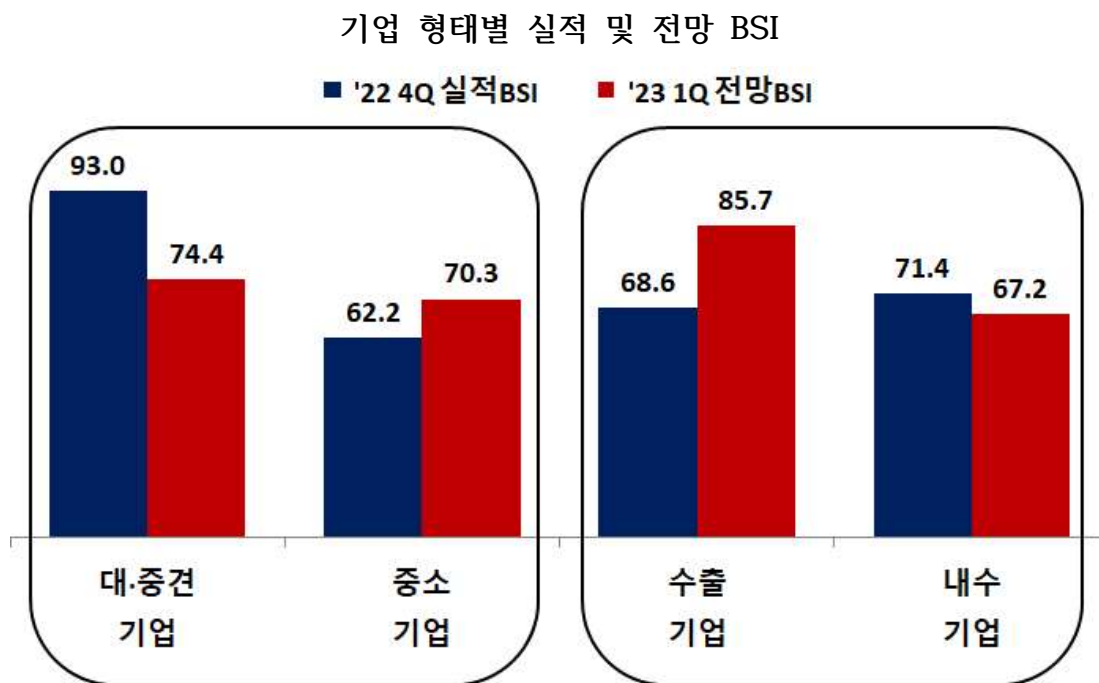


3. 업종별·기업형태별 경기 전망 및 실적 BSI

- 2023년 1분기 업종별 전망BSI는 기계장비(80.0), 운송장비(76.9), 전기전자(57.9), 철강금속(53.8), 기타제조업(53.8) 등 전 업종에서 부정적 전망을 내놓고 있음.
- 2022년 4분기 업종별 실적BSI도 철강금속(76.9), 기타제조업(76.9), 기계장비(76.7), 운송장비(69.2), 전기전자(31.6) 등 전 업종에서 기준치를 하회했음.
- 전 업종에서 2023년 1분기 경기를 부정적으로 내다보는 가운데, 철강금속제조업이 가장 낮은 수준의 BSI지수를 나타냈음. 이는 원자재, 기초자본재를 공급하는 산업으로 전 산업의 걸친 수요감소의 영향을 가장 빠르게 체감하는 업종의 특성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됨.
- 전기전자제조업의 경우 국내외 소비심리 악화와 계절적 요인이 함께 겹치면서 2022년 4분기 실적BSI가 매우 낮은 수준으로 조사되었음. 특히 전기전자제조업 실적BSI가 업종별 가장 낮은 수준을 보인 것은 2022년 2분기부터 3개 분기 연속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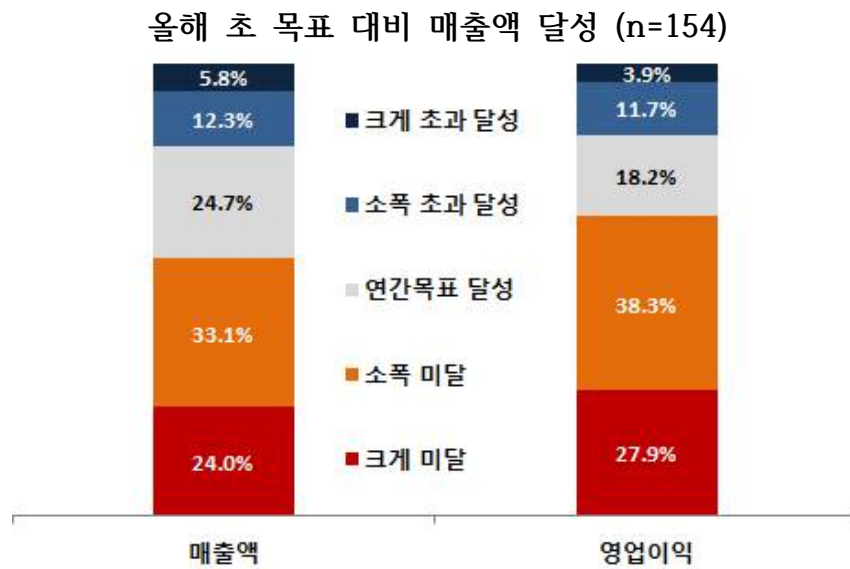
- 창원 제조업의 규모별·매출형태별 전망을 보면, 대·중견기업군(74.4)과 중소기업(70.3), 수출위주기업(85.7), 내수위주기업(67.2) 등 모든 기업군에서 2023년 1분기를 부정적으로 내다보고 있음.
- 규모별·매출형태별 4분기 실적BSI도 대·중견기업군(93.0)과 중소기업(62.2), 수출위주기업(68.6), 내수위주기업(71.4) 등 모든 기업군에서 기준치를 하회했음.



- 규모별로는 중소기업이 대·중견기업과 비교해 실적과 전망BSI 모두 낮은 수준으로 조사되었음. 형태별로는 전망치는 수출기업이 내수기업보다 높은 수준을 보였으나, 실적치는 내수기업이 수출기업보다 높은 수준을 나타냈음.

4. 연간 목표치 달성 여부와 국내외 요인

- 연초에 계획한 매출액 목표치의 달성여부를 묻는 질문에, 응답업체의 57.1%가 ‘목표에 미달했다’고 답했음. ‘연간목표를 달성했다’는 응답은 24.7%, ‘목표를 초과 달성했다’는 응답도 18.1%를 점했음.
한편 영업이익을 기준으로 묻는 질문에는 66.2%가 ‘목표에 미달했다’고 답했음. ‘연간목표를 달성했다’는 응답은 18.2%, ‘목표를 초과 달성했다’는 응답은 15.6%를 점했음.
- 매출액과 영업이익 모두 연초 계획한 목표치를 달성하지 못했다는 비중이 절반 이상을 차지한 가운데, 매출액 대비 영업이익의 목표치 미달 비중이 더 높게 나타났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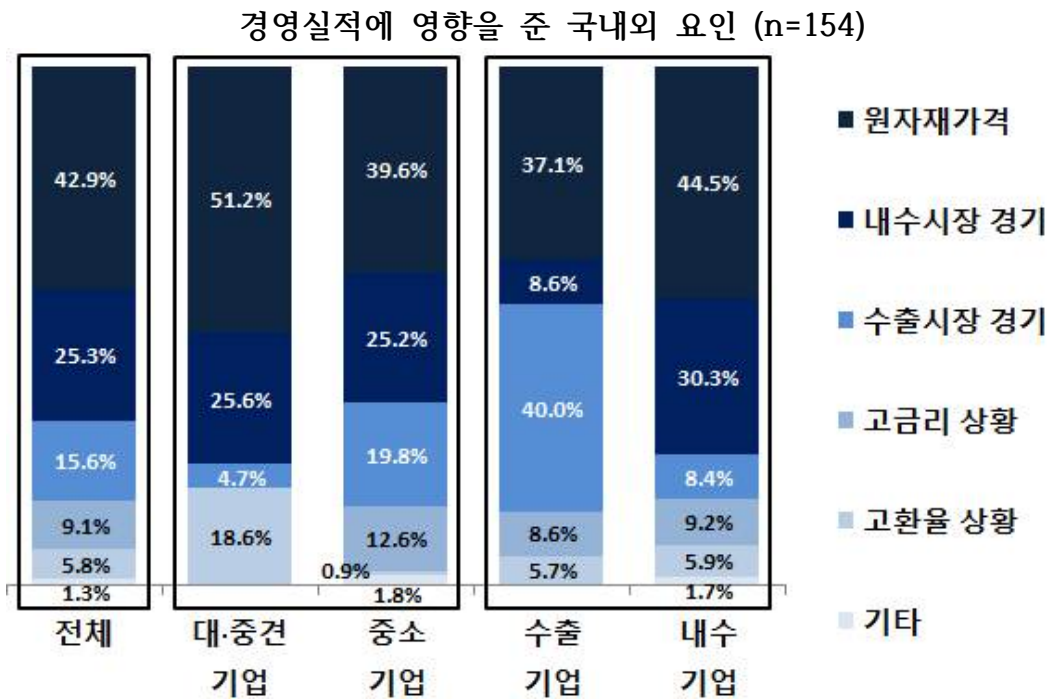


- 매출액과 영업이익 등 경영실적에 영향을 미친 요인들을 묻는 질문에 응답업체의 42.9%가 ‘원자재 가격’이라 답해 가장 많았음. 다음으로 ‘내수시장 경기’ 25.3%, ‘수출시장 경기’ 15.6%, ‘고금리 상황’ 9.1%, ‘고환율 상황’ 5.8% 순으로 답했음. 대량생산 중심의 창원지역 산업에 있어 원자재 가격 상승은 고스란히 채산성에 영향을 미쳐 가격경쟁력 약화와 수익성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임.

○ 규모별로 대·중견기업은 51.2%로 과반수 이상이 ‘원자재 가격’을 경영실적에 영향을 미친 가장 큰 요인으로 꼽았음. 다음으로 ‘내수시장 경기’(25.6%), ‘고환율 상황’(18.6%), ‘수출시장 경기’(4.7%)가 뒤를 이었음.

중소기업의 경우 ‘원자재가격’(39.6%), ‘내수시장 경기’(25.2%), ‘수출시장 경기’(19.8%), ‘고금리 상황’(12.6%) 순으로 응답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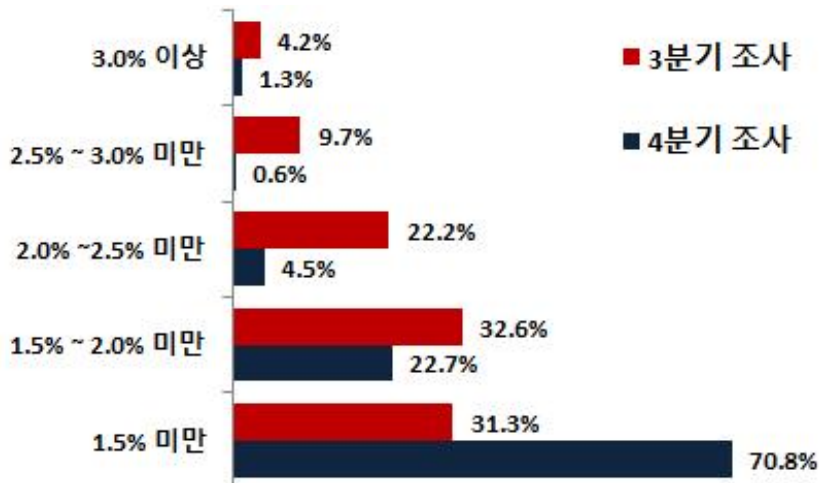
○ 형태별로 수출기업은 ‘수출시장 경기’와 ‘원자재 가격’을 각각 40%, 37.1%가 응답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고, 내수기업은 ‘원자재 가격’과 ‘내수시장 경기’를 각각 44.5%, 30.3%가 꼽아 가장 많았음.



5. 2023년 우리나라 경제성장률 전망 및 대내외 리스크

- 기획재정부가 2023년 경제성장률을 1.6%(2022년 12월 21일 기준)¹⁾로 전망하는 가운데, 기업현장의 예상치는 어떠한가를 묻는 질문에 응답업체의 70.8%가 1.5% 미만으로 응답했음. 22.7%는 정부와 각 기관이 예상하는 ‘1.5% 이상 2.0% 미만’으로 답했고, ‘2.0% 이상’으로 답한 비중은 6.4%에 그쳤음.
- 이와 같은 전망치는 지난 분기(3분기 말)에 이루어진 조사 결과 큰 차이를 보였음. 2023년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이 ‘1.5% 미만’이 될 것으로 응답한 비중이 31.3% 수준이었으나 4분기 조사 결과 39.5%p로 비중이 커졌음. 더욱이 3분기 조사 결과에서는 ‘2.0% 이상’이 될 것이란 비중이 36.1%였으나, 4분기에는 29.7%p 줄은 6.4%을 비중을 나타냈음.

2023년 우리나라 경제성장률 전망 (n=15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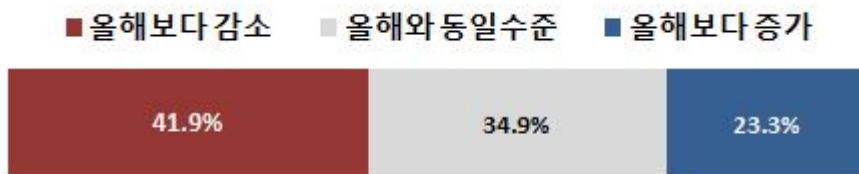


1) 2023년 주요 기관별 우리나라 경제성장률 전망(2022년 12월 21일 기준)

- 한국은행 : 1.7% - 산업연구원 : 1.9% - 한국금융연구원 : 1.7% - 한국경제연구원 : 1.9%
 - OECD : 1.8% - IMF : 2.0% - 현대경제연구원 : 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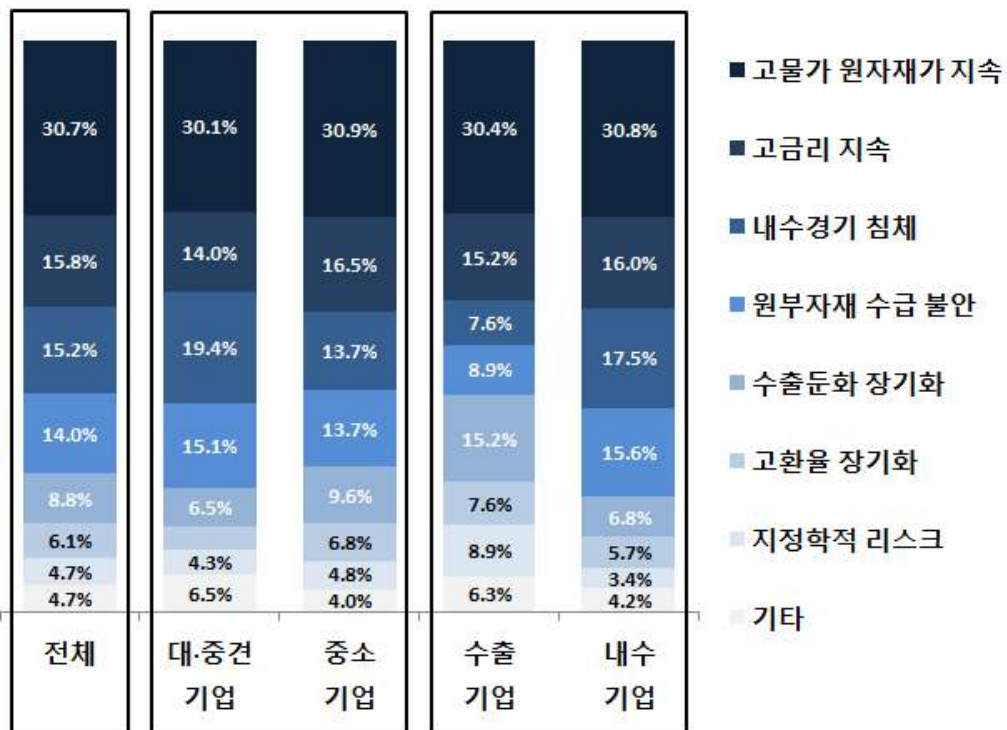
- 2023년 경제성장률이 낮은 수준을 보일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인 가운데, 2022년과 비교해 2023년 투자계획은 어떠한가를 묻는 질문에 응답업체의 41.9%가 '올해보다 감소할 것'이라 답했고, '올해와 동일한 수준이 될 것'이란 응답은 34.9%, '올해보다 증가할 것'이란 응답은 23.3%에 그쳤음.

2022년 대비 2023년 투자계획 (n=15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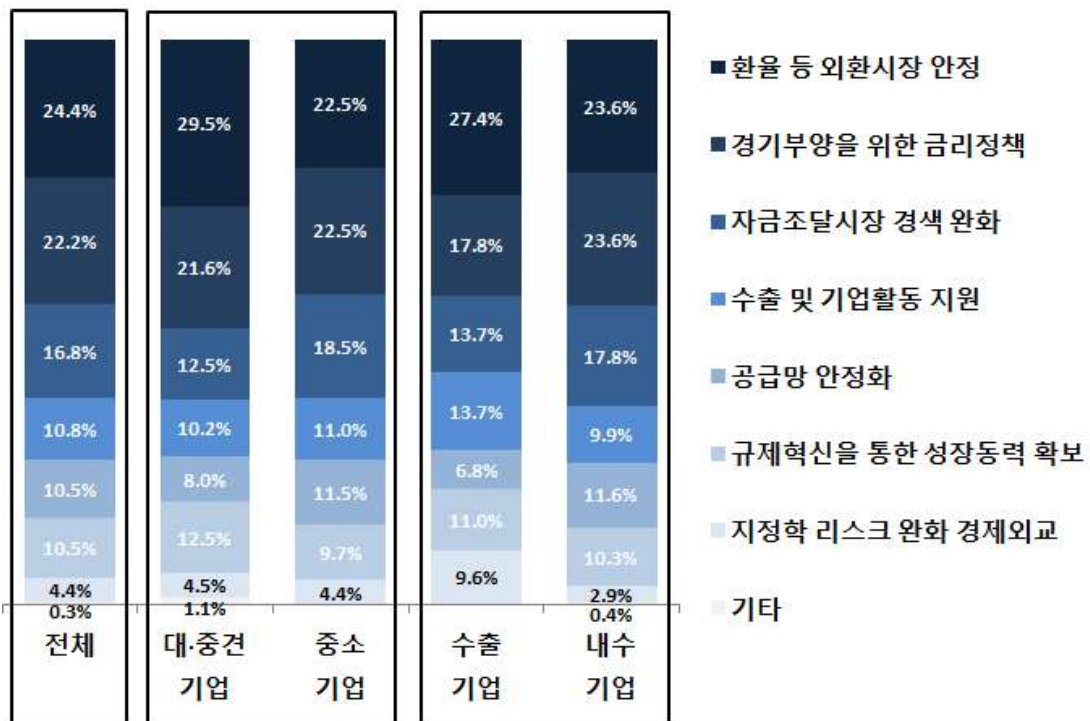
- 2023년 우리나라 경제를 위협하는 대내외 리스크를 무엇으로 생각하는가에 대한 질문에 응답업체의 30.7%가 '고물가 원자재 가격 지속'을 꼽아 가장 많았음. 다음으로 '고금리 지속' 15.8%, '내수경기 침체' 15.2%, '원부자재 수급 불안' 14.0%, '수출둔화 장기화' 8.8%, '고환율 장기화' 6.1%, '지정학적 리스크(우크라이나전쟁 등)' 4.7% 순으로 답했음.

2023년 대내외 리스크(n=154)



- 모든 기업군에서 2023년 대내외 리스크로 ‘고물가 원자재가격 지속’을 가장 많이 꼽았음. 이어서 기업 규모 및 형태별로, 대·중견기업과 내수기업이 ‘내수경기 침체’를 리스크로 꼽은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았고, 중소기업과 수출기업은 ‘고금리 지속’으로 응답한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음.
- 경제 리스크 관리를 위해 정부가 역점으로 두어야 할 과제를 묻는 질문에 ‘환율 등 외환시장 안정’ 24.4%, ‘경기부양을 위한 금리정책’ 22.2%, ‘자금조달시장 경색 완화’ 16.8%, ‘수출 및 기업활동 지원’ 10.8%, ‘공급망 안정화’ 10.5%, ‘규제혁신을 통한 성장동력 확보’ 10.5%, ‘지정학적 리스크 완화를 위한 경제외교’ 4.4% 순으로 답했음.
- 기업 규모 및 형태별로, 중소기업과 내수기업은 ‘경기부양을 위한 금리정책’을 꼽은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고, 대·중견기업은 ‘규제혁신을 통한 성장동력 확보’에 상대적으로 높은 응답률을 보였음.

정부 역점 과제(n=154)



- 환율 등 외환시장의 안정을 정부의 경제분야 역점 과제로 지목한 가운데, 2023년 사업계획 수립에 기준으로 잡은 환율 수준은 평균 '1,275.50'으로 조사되었음.

2023년 사업계획 수립을 위해 전망하는 환율 수준

	전체	대·중견기업	중소기업	수출기업	내수기업
예상환율 (원/달러)	1275.50	1297.96	1251.69	1268.77	1277.65